



“힘 보태려 했는데...”

류, 필라델피아전 2실점...4승 실패
다저스타디움 세월호 희생자 애도

‘코리안 몬스터’ 류현진(LA 다저스)이 올시즌 홈구장 첫 승 신고를 또 다음 기회로 미뤘다.

류현진은 23일 미국 LA 다저스타디움에서 벌어진 필라델피아 필리스와의 홈경기에서 선발등판, 6이닝 동안 9안타와 볼넷 2개를 허용하며 2실점했다.

탈삼진 3개를 곁들이며 투구수 106개를 기록한 류현진은 스트라이크를 68개 낚아 막판 공격적인 투구를 했으나 무실점 행진이 18이닝에서 끝났다. 평균자책점은 1.93에서 2.12로 조금 올라갔다.

지난 18일 샌프란시스코전에서 시즌 3승째를 따낸 뒤 나올 휴식만 취하고 등판한 류현진은 평소보다 빨리 조금 무던했다 상대 투수 A.J 버넷에게 3안타를 맞아 고전했다. 그러나 실점을 최소화하는 위기관리 능력만큼은 탁월했다.

경기 전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을 위해 묵념을 하고 투구를 시작한 류현진은 1회초 공 9개 만으로 까다로운 필라델피아 타선을 삼자범퇴로 처리했다. 2회부터 6회까지는 매 이닝 2명 이상의 주자를 내보냈다.

류현진은 2회초 선두타자 라이언 하워드에게 우전안타를 맞았다. 1사 후에는 유격수가 평범한 공을 놓쳐 풀지에 1사 1·2루가 됐다. 하지만 류현진은 2루수 뜰공에 이어 삼진으로 초반 위기를 넘겼다.

3회에는 첫 타자로 나선 투수 버넷과 벤 리비에에게 연속 안타를 맞아 무사 1·2루에 풀렸으나 지미 롤린스를 삼구 삼진으로 돌려세운 뒤 강타자 말론 버드에게 병살플레이를 유도해 이닝을 마쳤다. 4회에도 1사 후 카를로스 루이스에게 좌측 펜스를 맞고 튀어나오는 3루타를 허용했지만 볼넷 이후 후속 타자들을 연속 땅볼로 잡아 실점하지 않았다.

그러나 투수에게 또 안타를 맞은 5회에는 고비를 넘지 못했다. 버넷과 리비에에게 연속 안타를 맞은 류현진은 1사 1·2루에서 버드에게 좌전안타를 맞아 1실점 한 뒤, 희생플라이를 허용해 0-2로 점수가 벌어졌다. 다저스는 5회말 무사 2루에서 류현진의 보내기 번트 이후 칼 크로포드의 중견수 희생플라이로 1점을 만회했다.

6회까지 투구 수가 106개에 이른 류현진은 위스 로에게 마운드를 넘겼다. 다저스는 연장 10회초 나온 실책으로 2-3으로 패했다. /연필뉴스



1군에 복귀한 좌완 심동섭(오른쪽)을 비롯한 KIA 투수들이 23일 챔피언스필드에서 진행된 자체 훈련에서 캐치볼을 하며 몸을 풀고 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새판 짠 마운드...KIA 반격 시작된다



양현종-홀튼-임준섭 주말 LG전 출격

3일간 꿀맛 휴식·심동섭 복귀도 ‘큰 힘’

2014시즌 첫 휴식기 ‘호랑이 군단’이 새 판을 짰다. 주중 경기가 없는 KIA 타이거즈는 안방에서 훈련을 하며 휴식기를 보내고 있다. 22일 오후에 훈련을 재개했던 KIA는 23일에도 자체 연습을 하며 숨을 골랐다.

휴식기를 지낸 KIA는 주말 잠실로 올라가 LG와 대결을 갖는다. 적절한 시간에 찾아온 천금같은 휴식이다. KIA는 롤러코스터를 탄 선발진 탓에 최근 투·타의 심각한 불균형에 시달렸다. 한참 속도를 내

던 톱타자 이대형의 페이스가 떨어졌고, 김주찬·이범호도 부상으로 엔트리가 말소 되는 등 위기의 상황에서 찾아온 휴식이다.

KIA는 올 시즌 홀튼을 1선발로 해 송은범-양현종-임준섭-박경태로 선발진을 가동시켰다. 하지만 박경태의 부진이 계속되자 지난 15일 경기에서 한승혁을 투입하며 선발진에 1차적인 변화를 줬다.

또 송은범이 선발로 나설 예정이었던 17일 한화와의 홈경기가 우천으로 취소된 뒤 로테이션을 미루는 대신 양현종을 18일 경기에 바로 출격시켰다. 그리고 하루 미뤄 송은범을 마운드에 올리면서 홀튼-양현종-송은범-임준섭-한승혁으로 선발 로테이션이 조정됐다.

휴식기 이후 선발진이 다시 꾸려진다. 앞선 로테이션 운영 결과와 선수들의 컨디션, 주말 LG전을 감안한 변화다.

KIA 선동열 감독은 “(이범호·김주찬)등 부상 선수가 있는데 때가 되면 돌아올 것이니까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 현재 상황에서 잘 꾸러가도록 하겠다. LG와의 경기는 (좌타자들이 많은 만큼) 좌투수로 승부를 하겠다”고 말했다.

선 감독의 구상대로 좌완 양현종이 가장 먼저 LG전에 투입된다. 충분한 휴식을 취한 홀튼이 그 뒤를

받치고 또 다른 좌완 임준섭도 LG를 상대한다.

막내 한승혁은 29일 홈경기에 내세워 두 차례 등판을 소화하게 할 방침이다. 송은범은 차분하게 마지막에 마운드에 오른다. 송은범의 심리적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선택이다.

김정수 투수 코치는 “(송)은범이가 자기 불에 대한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있다. 공은 좋다.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문제가 아닌 만큼 심리적인 부담을 덜라고 주문하고 있다. 자신감을 찾으면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고 믿음을 보여줬다.

새판은 다음 휴식기가 찾아오는 5월6일까지의 일정에 맞춰 짜여졌다. 다음 휴식전과 김진우의 복귀 시점에 따라서 다시 선발진이 조정될 예정이다.

새 로테이션으로 무장한 KIA는 부상에서 탈출한 좌완 심동섭까지 1군에 합류하면서 날개를 달았다. KIA의 반격이 기다리고 있다. /김여울기자 wool@



김병현, 함평서 ‘부활 프로젝트’

2군 훈련 소화하며 “나의 불 찾겠다”

함평에서 김병현의 부활 프로젝트가 진행된다. 고향으로 돌아온 KIA 투수 김병현이 부활을 위해 마음을 단단히 먹었다. 2군 선수단과 동행을 하며 경기를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에 함평에 짐을 풀었다. 본인이 직접 요청해서 헬린저스 필드에 입소를 한 것이다.

김병현은 얼마 전 구단에 “나의 것을 찾을 수 있도록 함평에서 마음껏 훈련을 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그리고 지난 22일 짐을 챙겨 들고 함평 헬린저스 필드 클럽하우스에 들어갔다.

광주에서 헬린저스 필드까지는 차로 30~40분 정도의 거리. 하지만 이 시간도 아끼워 할 정도로 김병현의 부활 의지가 뜨겁다. 무엇보다 야간에도 마음껏 연습을 할 수 있는 실내 연습장이 갖춰져 있다는

점 김병현의 발을 끌었다.

함평 클럽하우스에는 연차가 어린 신인급 선수들이 주로 합숙을 하고 있다. 연차와 명성으로 따지자면 김병현은 이곳에서 VVIP 선수다.

하늘 같은 선배님의 열정에 후배들이 지원군으로 나섰다. 포수 손성근이 먼저 자신의 방을 양보하고 투수 서명지의 방으로 건너가면서 김병현에게 독방이 주어졌다.

구단과 코칭스태프도 김병현을 위해 시간과 자원을 주기로 했다.

경험과 경력을 갖추고 있는 투수인 만큼 스스로 짠 훈련 스케줄에 맞춰 ‘김병현의 것’을 찾을 수 있도록 배려할 방침이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작은 만남 큰 기쁨! 친절과 정성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생활 게시판

구독신청 및 배달사고는
독자서비스국
062-220-0551

동양철학원
동구 불로동 42-1
시주, 관상, 궁합, 택일
개명, 재물운, 혼사, 묘지상담
☎(062)224-7687

고전방
동구 궁동 34-4번지 중앙초등학교후문
도자기, 서양화, 고서화
전문판매점
대표 김화중 ☎(062)224-4869

신신예술의집
동구 궁동 예술의거리
기념품전문판매점
대표 서태석 ☎(062)222-1936

광주화랑
동구 궁동 예술의거리
동서양화 매매 및 무료감정
고급표구, 제작판매
대표 박종환 ☎(062)232-4784

박당화랑
동구 궁동 51-18번지 예술의 거리
한국화, 서양화 매매 및 감정
고미술품 전문
대표 박환승 ☎(062)222-6866

석당화랑
동구 예술의 거리
병풍, 액자, 족자, 표구일체
고서화 위탁판매
대표 이석재 ☎(062)222-3118

황금당
동구 황금동 90번지(골박스사거리)
커피정예물, 금, 보석, 시계 및 고급품목일체
고급시계 수리
대표 김삼용 ☎(062)232-6453

금탑소머리국밥
동구 대의동 31-1
동부경찰서 금남지구대앞
대표 정은숙 ☎(062)673-7971

커피홀릭
충장로3가 11번지
(와이즈파크 정문 건너편2층)
직접 볶은 신선한 커피
☎(062)229-0230

삼각그린이발관
북구 삼각동 그린타운@상가 108호
염색등 성실하게 정성스럽게
☎(062)574-6583

선재영술원
서석동 남동천주교정문건너편 신앙촌2층
시주, 관상, 운명, 궁합, 성명학, 택일
승진운, 이사운, 묘지상담
대표 천명남 ☎(062)225-4125

The좋은집
북구 오치동 924-20번지
욕실인테리어, 누수탐사, 설비
관찰, 샷시전문
대표 박영권 ☎(010)2607-6949